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산업경제의 성장력 복원이 필요하다
- 주력산업의 몰락과 신성장산업의 실종

# 목 차

---

## ■ 산업경제의 성장력 복원이 필요하다

- 주력산업의 몰락과 신성장산업의 실종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제조업,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 분석 .....	2
3. 시사점 .....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산업연구실       :    김   천   구   선   임   연   구   원 (2072-6211, ck1009@hri.co.kr)

### □ 산업경제의 성장력 복원이 필요하다 - 주력산업의 몰락과 신성장산업의 실종

#### ■ 개요

현재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자본투입의 한계 등의 원인으로 향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국내 경제의 장기 성장성 복원에 대한 논의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 하락 요인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생산구조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 제조업,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 분석

생산구조 측면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추세성장률을 산출하여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살펴보았다. 추세성장률이란 장기적인 실질GDP 증가의 추세 또는 경향을 의미하며 성장률의 장기적인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제조업)** 제조업의 현재 추세성장률은 5%대 중반 수준이다. 제조업의 추세성장률은 1970년대 약 16.7%, 1980년대는 11.8%였다. 이후 추세성장률은 하락세를 나타내며 1990년대 8.9%, 2000년대 6.9% 그리고 2010년대 약 5.4%까지 하락하였다.

제조업을 4가지 산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세성장률을 추정해본 결과 현재 전자산업(10.0%), 중공업(4.2%), 화학공업(3.2%), 경공업(2.0%) 순으로 추세성장률이 높았다. 전자산업은 아직까지 두자릿대의 추세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추세성장률 둔화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인 중공업의 경우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추세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었으며, 화학공업 역시 2000년대 추세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였다. 경공업은 1%대의 낮은 추세성장률을 보이다 최근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다.

제조업을 12개 중분류로 세분화해 본 결과 아직까지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전자산업에 속하는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와 중공업에 속하는 기계장비, 운송장비 산업 등이었다. 성장 속도가 특히 느린 산업은 경공업에 속하는 음료·담배, 목재·종이·인쇄·복제와 중공업에 속하는 금속제품 등이다. 대부분의 제조 산업에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과거 대표적인 사양산업이었던 섬유·가죽 산업은 가격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지며 재도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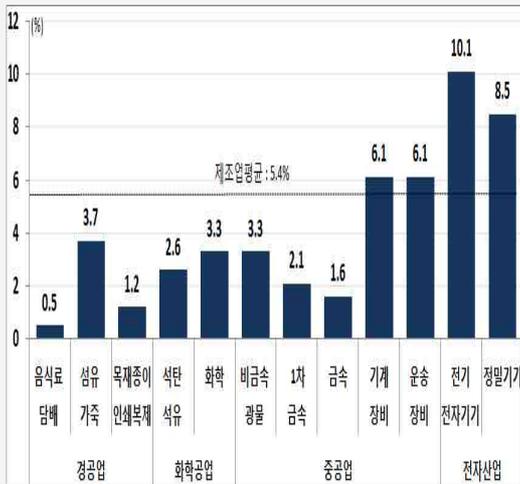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현재 추세성장률은 3%대 초반이다.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은 1970년대 9.7%, 1980년대는 9.4%대로 약 10%대에 육박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7.6%로 하락한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4.1%로 급락하였으며 최근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은 3.1%까지 낮아졌다.

서비스업을 산업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세성장률을 추정해본 결과 현재 유통서비스(3.7%), 생산자서비스(3.3%), 공공·사회서비스(3.1%),

소비자서비스(1.8%) 순으로 추세성장률이 높았다. 생산자서비스와 소비자서비스의 추세성장률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급락하였다. 유통서비스는 추세성장률이 최근 소폭 반등하였으며, 공공·사회서비스는 2000년대 이후부터 3%대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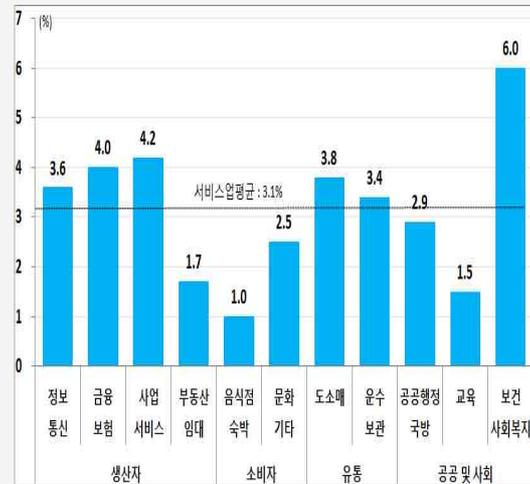
서비스업을 11개 중분류로 세분화해 본 결과 아직까지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보건·사회복지, 사업서비스, 금융·보험이었다. 성장성이 특히 낮은 서비스업은 음식점·숙박, 부동산·임대, 교육 등으로 1%대의 낮은 추세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에 속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통신업은 2000년대까지 서비스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성장성이 급락하고 있다. 반면 유통서비스업 중 도소매업과 사회서비스업 중 보건·사회복지 산업의 추세성장률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이다.

< 중분류 기준 제조업의 추세성장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주 : 2010~14년 추세성장률 기간평균

< 중분류 기준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주 : 2010~14년 추세성장률 기간평균

### ■ 시사점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경제는 성장 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주력 산업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 제조업의 추세성장률 하락을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의 출현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성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 산업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한 경제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제조업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수요시장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업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업 규모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넷째**,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 개요

○ (연구배경) 현재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잠재성장률은 향후 추세적인 하락이 예상되어 국내 경제의 장기 성장성 복원에 대한 논의가 점차 중요해짐

-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은 2%대의 저성장이 지속

·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국내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자본투입의 한계 등의 원인으로 향후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1989~1997년) 7.8%에서 외환위기 이후(1998~2007년) 4.9%로 둔화 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5%로 추가적인 하락세를 경험함<sup>1)</sup>

· 잠재 성장률은 자본축적 증가, 노동인구 증가, 기술진보 등 장기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는데 향후 저출산·고령화, 자본투입의 한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향후 장기 성장성 복원이 국내 경제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임

· 현재의 낮은 경제성장률 지속의 원인은 중장기적인 성장성 둔화에 크게 기인하므로 장기 성장성 회복이 중요

○ (연구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 하락 요인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생산구조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

-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을 생산구조 측면으로 구분하여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는지 혹은 낮아지는지 살펴봄

· 국내총생산은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을 중심으로 분석

1) “5만 달러 국가의 조건(현대경제연구원)”, 2015. 1.

## 2. 제조업,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 분석

### 1) 분석방법

#### ○ 국내 잠재성장률의 둔화 원인을 제조업 12개 부문과 서비스업 11개 부문의 추세성장률을 산출하여 살펴봄

- 생산구조 측면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추세성장률을 산출하여 국내 잠재성장률 둔화 원인을 살펴봄
  - 제조업을 중공업, 화학산업, 중공업, 전자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제조업의 12개 중분류로 구분하여 살펴봄
  - 서비스업은 생산자, 소비자, 유통, 공공 및 사회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서비스업의 11개 중분류로 구분하여 살펴봄
- 추세성장률이란 장기적인 실질GDP 증가의 추세 또는 경향을 의미하며 성장률의 장기적인 균형 상태를 의미함
  - 추세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중장기 성장 추세를 의미
- 제조업, 서비스업의 장기적인 측면인 추세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 시계열 접근법인 HP필터링을 이용하여 산출
  - 분석 기간은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국민계정의 경제활동별 GDP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 제조업, 서비스업의 산업 분류 >

대분류	중분류1	중분류2
제조업	경공업	① 음식료·담배 ② 섬유·가죽 ③ 목재·종이·인쇄·복제
	화학공업	① 석탄·석유 ② 화학
	중공업	① 비금속광물 ② 1차금속 ③ 금속 ④ 기계·장비 ⑤ 운송장비
	전자산업	① 전기·전자기기 ② 정밀기기
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	① 정보통신 ② 금융·보험 ③ 사업서비스 ④ 부동산·임대
	소비자서비스	① 음식점·숙박 ② 문화·기타
	유통서비스	① 도소매 ② 운수·보관
	공공 및 사회서비스	① 공공행정·국방 ② 교육 ③ 보건·사회복지

2)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 원인과 효과 분석(2012)“, 조장욱.

2) 국내 경제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 제조업, 서비스업은 국내 총부가가치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주도

- 경제활동별 측면에서 성장기여도는 제조업, 서비스업이 전체 성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지만 성장성은 점차 하락하는 모습

- 서비스업은 1970년대 3.8%p에서 1980년대 4.3%p로 성장기여도가 상승한 이후 추세적으로 성장기여도가 하락하여 현재 1%p대 중반 수준을 유지
-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1970년대 3.6%p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1%p대 초반 수준임
- 제조업, 서비스업을 제외한 농림어업, 건설업 등의 성장기여도는 현재 0%p대의 미미한 수준

-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이 국내 총부가가치의 90% 이상을 차지

- 제조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약 30.3%, 서비스업의 비중은 약 59.4%임
- 이외에 농림어업 2.3%, 건설업 4.9%, 광업 0.2%, 전기·가스·수도업 2.8%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주 : 기타는 광업, 전기·가스·수도업임.

<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주 : 1) 기타는 광업, 전기·가스·수도업임.  
2)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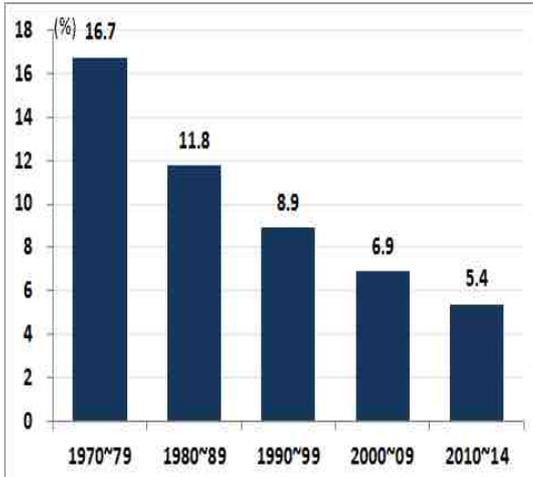
### 3) 제조업의 추세성장률

○ 제조업 부문의 추세성장률은 현재 5%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장 속도는 전자산업, 중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순으로 높았음

- 제조업 부문의 추세성장률은 현재 5%대 중반 수준을 유지
  - 제조업의 추세성장률은 1970년대 약 16.7% 수준이었으며 1980년대는 10%대를 상회하였음
  - 이후 추세성장률은 하락세를 나타내며 1990년대 8.9%, 2000년대 6.9%, 2010년 이후 약 5.4%를 기록
  - 다만 아직까지 국내총생산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약 3.5% 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제조업을 4가지 산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세성장률을 추정해본 결과 전자산업, 중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순으로 추세성장률이 높았음
  - 최근 4가지 제조업 유형의 추세성장률(2010~14년)은 전자산업(10.0%), 중공업(4.2%), 화학공업(3.2%), 경공업(2.0%) 순으로 높았음
- 전자산업은 아직까지 두자릿대의 추세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추세성장률 둔화 폭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전자산업은 1970년대(29.0%)→1980년대(18.1%)와 2000년대(14.3%)→2010년대(10.0%)에 큰 폭의 추세성장률 둔화를 경험
  - 다만 타 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성장성을 유지
- 국내 주력 산업인 중공업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추세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둔화되었으며, 화학공업은 2000년대 추세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
  - 중공업은 1970년대(20.6%)부터 2000년대(5.2%)까지 추세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화학공업은 1990년대(9.3%)→2000년대(4.5%) 추세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
- 경공업은 1%대의 낮은 추세성장률을 보이다 최근 소폭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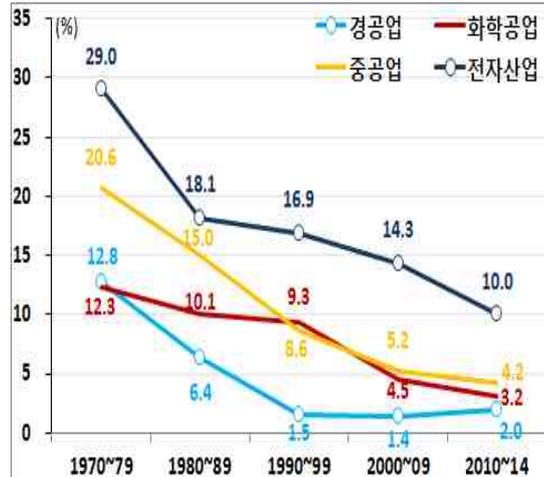
- 경공업은 1990년대 추세성장률이 1%대로 급락한 이후 2000년대까지 회복하다 최근 추세성장률이 2%대로 반등

< 제조업의 추세성장률 기간평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제조업 유형별 추세성장률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제조업을 12개 중분류로 세분화해 본 결과 아직까지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기계장비, 운송장비며 음식료·담배, 목재·종이·인쇄·복제, 금속제품 등은 성장성이 크게 낮았음

- 아직까지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전자산업에 속하는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와 중공업에 속하는 기계장비, 운송장비 산업 등임

- 제조업의 평균 추세성장률(5.4%)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산업은 전기·전자기기(10.1%), 정밀기기(8.5%), 기계장비(6.1%), 운송장비(6.1%) 등임
- 이들 4가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제조업의 평균 추세성장률을 밑돌고 있음

- 성장 속도가 특히 느린 산업은 경공업에 속하는 음식료·담배, 목재·종이·인쇄·복제와 중공업에 속하는 금속제품 등임

- 제조업의 평균 추세성장률(5.4%)을 크게 밑돌고 있는 산업은 음식료·담배(0.5%), 목재·종이·인쇄·복제(1.2%), 금속제품(1.6%) 등임
- 이들 산업은 아직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추세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경공업 중 섬유 및 가죽 산업은 추세성장률이 최근 반등하였음

- 최근 섬유·가죽 산업을 제외한 모든 제조 산업에서 추세성장률이 하락 혹은 정체되어 있음
- 대표적인 사양산업이었던 섬유·가죽 산업은 고기능, 고부가가치 섬유 개발 등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
  - 섬유·가죽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에 주력 수출 산업 분야로 전체 제조업 성장을 주도
  - 섬유·가죽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화 되고 국내의 인건비 및 지가가 점차 높아지며 추세성장률이 급감
  - 섬유산업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계 기업들이 퇴출되고 설비매각 및 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시행<sup>3)</sup>
  - 최근 섬유관련 기업이 고기능, 고부가가치 섬유 개발 등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지며 섬유·가죽 산업의 추세성장률이 2000년대(1.8%) 대비 2010년대 3.7%로 서서히 높아지고 있음

< 중분류 기준 제조업의 추세성장률 기간평균 >

(%)

		1970~79	1980~89	1990~99	2000~09	2010~14
경공업	음식료품·담배	9.7	6.7	3.3	1.1	0.5
	섬유·가죽	15.1	5.1	-0.9	1.8	3.7
	목재·종이·인쇄·복제	12.3	10.0	4.2	1.2	1.2
화학공업	석탄·석유	18.0	9.9	10.2	4.2	2.6
	화학	11.6	10.0	9.2	4.6	3.3
중공업	비금속광물	9.4	11.6	5.2	3.1	3.3
	1차 금속	26.3	13.6	5.6	2.0	2.1
	금속	24.7	16.9	10.1	4.4	1.6
	기계·장비	26.4	16.4	11.3	7.2	6.1
	운송장비	21.8	18.3	11.5	7.5	6.1
전자산업	전기·전자기기	28.7	18.8	17.5	14.6	10.1
	정밀기기	30.4	14.6	11.5	11.1	8.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3) “무역달러 1조달러시대 수출 고부가가치화 전략, 섬유산업에서 배운다(무역협회)“, 2011

#### 4)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

○ 서비스업 부문의 추세성장률은 현재 3%대 초반이며, 성장속도는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공공·사회서비스, 소비자서비스 순으로 높았음

-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은 현재 3%대 초반까지 하락

-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은 1970년대 약 9.7%, 1980년대는 9.4%대로 약 10%대에 육박하였음
- 1990년대 7.6%로 하락한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4.1%로 급락하였음
- 최근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은 3.1%까지 하락하였으며 국내총생산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약 3.5%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서비스업을 산업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sup>4)</sup>으로 구분하여 추세성장률을 추정해본 결과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공공·사회서비스, 소비자서비스 순으로 추세성장률이 높았음

- 최근 4개 서비스 산업의 추세성장률(2010~14년)은 유통서비스(3.7%), 생산자서비스(3.3%), 공공서비스(3.1%), 소비자서비스(1.8%) 순으로 높았음

- 생산자서비스와 소비자서비스의 추세성장률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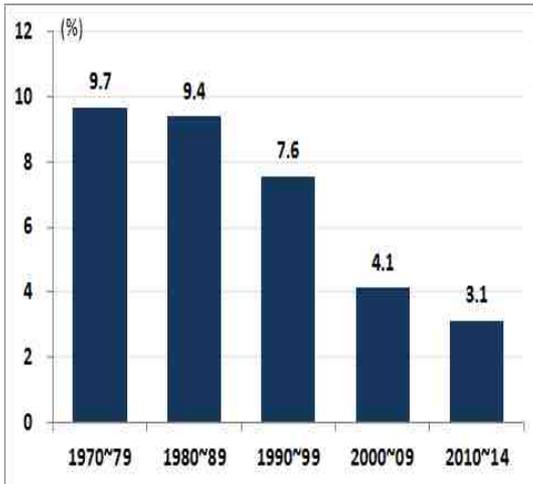
- 생산자서비스는 1980년대(13.0%)→1990년대(9.7%)→2000년대(4.7%)로 소비자서비스는 1990년대(8.2%)→2000년대(3.3%)로 급락

- 유통서비스는 추세성장률이 최근 소폭 반등하였으며, 공공·사회서비스는 3%대를 유지하고 있음

- 유통서비스는 추세성장률이 3.5%에서 3.7%로 반등하였으며 공공·사회서비스는 3%대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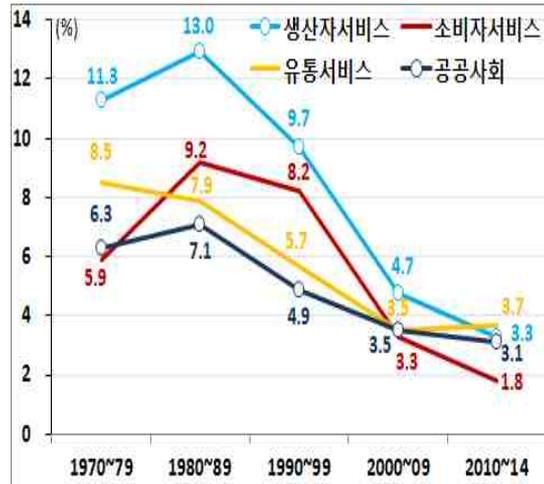
4) ① 생산자서비스 : 생산기업에 중간수요를 공급하는 서비스, ② 소비자서비스 : 개인 및 가계에 의해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서비스, ③ 유통서비스 : 물적 재화의 시공간상의 이동과 소유상의 이동이 발생하는 서비스, ④ 공공·사회서비스 : 민간경제에 대한 공공재의 비영리적 공급이 발생하는 서비스.

<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 기간평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서비스업 유형별 추세성장률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서비스업을 11개 중분류로 세분화해 본 결과 아직까지 높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 보건·사회복지, 사업서비스, 금융·보험이며 음식점·숙박, 부동산·임대, 교육 등은 성장성이 낮았음

- 서비스업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추세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와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등임

- 서비스업의 평균 추세성장률(3.1%)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산업은 보건·사회복지(6.0%), 사업서비스(4.2%), 금융·보험(4.0%) 등임
- 이외에도 도소매(3.8%), 정보통신(3.6%), 운수·보관(3.4%) 등이 서비스업 평균 추세성장률을 상회

- 현재 성장성이 특히 낮은 서비스산업은 음식점·숙박, 부동산·임대, 교육 등으로 1%대의 낮은 추세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서비스업의 평균 추세성장률(3.1%)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산업은 음식점·숙박(1.0%), 부동산·임대(1.7%), 교육(1.5%) 등임
- 음식점·숙박업은 시장 포화와 과당 경쟁의 영향으로 부동산·임대업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성장성이 크게 약화
-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 취학 연령대의 감소 등으로 교육산업의 성장성이 감소

○ 정보통신업은 성장성이 급락한 반면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은 성장성이 최근 반등하고 있음

- 통신업은 2000년대까지 서비스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성장성이 급락
  - 통신 시장은 시장 포화로 인한 매출 성장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압력 등으로 성장성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
- 서비스업에 속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유통서비스업 중 도소매업과 사회서비스업 중 보건·사회복지 산업의 추세성장률이 최근 반등하였음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부의 육아 보육 지원 확대 및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으로 보건·사회복지업의 성장성이 향상
  - 도소매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
  -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확산 역시 도소매업의 생산성 증가 원인으로 작용

< 중분류 기준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 기간평균 >

(%)

		1970~79	1980~89	1990~99	2000~09	2010~14
생산자 서비스	정보통신	16.9	16.0	16.7	8.0	3.6
	통신	20.2	16.4	20.2	9.1	2.6
	출판·방송 영화·정보	13.6	15.0	12.8	6.4	4.6
	금융·보험	18.9	16.3	9.9	4.7	4.0
	사업서비스	16.2	15.4	8.8	5.4	4.2
	전문과학·기술	15.4	16.3	7.3	5.0	4.3
	사업지원	21.2	12.9	12.7	6.1	3.9
소비자 서비스	부동산·임대	8.0	10.1	8.4	3.1	1.7
	음식점·숙박	5.0	8.1	7.7	2.4	1.0
유통 서비스	문화·기타	8.5	10.9	8.8	4.2	2.5
	도소매	7.9	8.0	5.4	3.1	3.8
공공 및 사회 서비스	운수·보관	12.7	7.2	6.5	4.4	3.4
	공공행정·국방	6.4	6.0	5.4	3.5	2.9
	교육	6.1	5.5	4.0	3.1	1.5
	보건·사회복지	11.2	15.9	5.6	4.3	6.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3. 시사점

○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주력 산업의 상실, 서비스업 성장세 미흡, 신성장 산업의 출현 지연 등이 국내 산업의 문제점으로 판단됨

- 성장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주력 산업이 점차 상실되고 있음
  - 주력 산업은 일국 경제의 대표 또는 주된 산업으로 생산과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
  - 전자산업은 아직 양호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국내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화학공업, 중공업 등 분야의 성장률 하락세가 뚜렷
- 제조업의 추세성장률 하락을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음
  -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 성장률을 서비스업 성장으로 상쇄하지 못한 채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추세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음
-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의 출현 역시 지연되고 있음
  - 바이오, 환경·에너지, 나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만한 뚜렷한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정책당국은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 판로개척, 기술경쟁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유도하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첫째, 국내 산업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한 경제혁신이 필요하다

-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혁을 신속히 완수하여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방지
  - 가까운 시일 내에 노동 인구의 절대적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찰

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방안을 마련하고,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활용 구조를 개선
-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임

-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 규제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비용편익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 정부와 기업 간 '규제유연화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정 규제와 산업현장과의 괴리 발생 시 해당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둘째, 제조업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수요시장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한다

- 제조업이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을 보다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개도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포스트 차이나 시장의 발굴이 시급함
- 또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됨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움직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로드맵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고기술 고부가가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

-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함
- 또한 우리 제조업의 취약점 중 하나인 핵심기술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초·원천 연구의 정부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셋째, 서비스 업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업 규모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 서비스업 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연구개발투자가 미약하여 전문성 및 품질수준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 수요의 해외유출이 유발되고 있음
  -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연구 산출물과 기술에 대한 매입 보장 등으로 정부가 시장개설자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임
- 특히, 서비스업내 M&A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영세성을 극복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이 무형의 형태를 가지는 서비스 기업 자산에 대한 업계의 공통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넷째,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노력 경주, 제조업 국내 유턴 유인, 관광·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산업계 내부적으로는 기존 주력 제품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
  - 또한 생명과학, 신소재, 우주항공 등의 다양한 신산업의 기반 육성, 경쟁력 강화, 기술 표준 선점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려는 노력이 필요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